

이덕일의 '역사의 창'



너희 죄가 너를 다시 찾는다

'구약성서'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 이중 '민수기'는 당초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의 '브미드바'라고 불렀는데, 인구 조사 기록과 희생 제물 수 등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들'이라는 뜻의 '아리트모이'라고도 불렀다. 구약성서를 중국어로 옮길 때 이 대목에 주목해 민수기(民數記)라고 옮겼기 때문에 우리말 성서도 민수기가 되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 23절에는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아무리 감추어도 지은 죄가 반드시 그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절을 한자 성어로 바꾸면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쓴 '춘추'(春秋)에 주석을 단 '춘추좌씨전'의 노(魯)나라 성공(成公) 14년(서기전 577) 조에 나오는 구절인데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징악이권

선, 懲惡而勸善)은 성인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역사서를) 편찬할 수 있겠는가?'라 했다. 공자가 '춘추'를 편찬하면 서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는 "공자가 춘추를 완성하자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두려워했다"(맹자, '등문공 하')라고 말한 것이다.

세상은 악한 자가 더 자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고도 벌을 받기는커녕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은 과연 역사의 신이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현재 일본 극우파 및 그 추종자들의 행태가 이를 말해 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큰 틀은 중국을 반공의 보루로 삼고, 일본을 민주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이었다. 장개석(蔣介石)이 이끄는 중국국민당이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승리하리라는 전제 아래 소련의 남침을 중국에서 막고, 일본 내의 전

범 등을 처벌해서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예상과 달리 국공내전은 모택동(毛澤東)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고, 미국은 전후 동아시아 정책을 수정해야 했다. 중국 대신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는 역코스(Reverse course) 정책이었다. 미군정은 감옥에 갇혀 있던 전범들을 대거 석방하고 전범 관련자들에게 내렸던 공직 추방령을 해제시켜 이들이 다시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A급 전범으로 투옥되어 있던 기시 노부스케(安井信介, 岸信介)가 석방되어 급기야 수상(1957~1960)까지 되었는데, 그가 바로 현 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다.

이때 석방된 A급 전범 중에 주목해야 할 인물이 사사카와 료이치(榎川良一, 1899~1995)다. 석방 후 도박의 일종인 경정(競艇)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며 '사사카와 재단'을 만들었는데,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남경(南京) 대학살은 없었다' 등 각

종 역사 왜곡을 주도한 단체다. 전범 이름이 들어간 재단 명칭이 세력 확장에 장애가 되자 이름을 '일본 재단'(The Nippon Foundation)으로 바꾸었다. 사사카와 료이치가 1995년 사망한 후 셋째 아들인 사사카와 료헤이(榎川陽平)가 재단 이사장이 되었는데, 그는 일본의 극우파 역사 교과서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든 '새역모' 모임 회장도 맡고 있다.

이 사사카와 재단은 국내 학계에 대해 침투해 있다. 해방과 동시에 해제되었어야 할 식민사학을 비롯해 일본 극우파를 추종하는 학문 경향이 여태껏 견제할 이유 중에는 언론을 비롯해서 식민사학과 한 몸인 각종 카르텔과 함께 일본이 국가 또는 사사카와 재단처럼 민간 차원에서 펼친 공적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정신세계를 갇아먹고 있는 이런 근본적 문제들에 메스를 들이대지 않고 현상적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방학 중 꼭 챙겨야 할 치과 검진



이난영  
조선대치과병원 소아치과장

소아 청소년기의 치아 건강이 어른이 된 후의 치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평균 수명 100세를 내다보는 고행화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 과외에 시달리며 불규칙한 식사와 간식, 무관심 등으로 인해 구강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국민 구강 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12세 아동 1인당 충치 수는 2.1개로 과거 2003년 3.3개에 비하면 감소했으나 OECD 평균인 1.6개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높다. 또 15세 충치 경험률은 60.5%나 되고, 치석이 있는 경우도 30.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혼합 치열기에는 영구치가 바르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방학 때에는 치과를 찾아 평소 소홀히 했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이 소아 청소년의 치과 검진 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은 충치 발생 여부와 영구치가 바르게 나오고 있는지 여부이다. 충치는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산 성분이 치아의 무기질을 파괴하는 만성 질환으로 한번 발생된 충치는 완전 회복이 불가능해 평생동안 치료를 반복해야 하는 비가역성 질환이므로 그 어느 질병보다도 예방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충치를 예방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은 올바른 칫솔질이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의 평균 칫솔질 횟수는 2.7회로 회수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많은 아이들이 식사 전에 이를 닦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이를 닦지 않거나 늦은 시간 간식을 먹고 그냥 자는 등 제대로 된 칫솔질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루 세 번, 식사 전이 아닌 식사 후에, 3분 동안 이를 잘 닦아야 하며 불소 치약과 칫솔 이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 보조 위생 용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 생긴 올바른 칫솔질 습관이야말로 평생 동안의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식이 조절인데 과도한 당분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특히 달고 끈끈한 간식류와 풀리나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의 빈도를 줄이고 과일이나 야채 등의 정정 식품 섭취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 나는 영구치에 실런트라 불리는 홈 메우기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불소를 도포해 치아의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비교적 학업에 부담이 덜한 방학을 이용해 칫솔질 교육과 충치 치료, 홈 메우기와 불소 도포 등의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방학 중 치과 검진 시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영구치가 바르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과잉치나 낭종, 치아중, 공간 부족과 같은 병적인 이유로 영구치가 나오지 못하는 맹목이나

정상 위치에서 벗어난 이소생출, 앞니가 거꾸로 물리거나 튀어나오는 부정 교합 등 학령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고르지 못한 치아 배열은 심미적인 문제뿐 아니라 씹는 기능의 저하, 언어 발달의 문제,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는 청소년기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 상실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이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아 청소년기의 교정 치료는 성장과 발육을 이용해 고른 치아 배열을 유도하고 향후 심각한 부정 교합의 방해를 차단하고 턱의 성장을 조절하는 성장 조절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교정 시기를 놓치게 돼 성인이 되면 치료가 어려워진다. 반면 심각한 골격적 문제나 유전적 인 문제가 있는 경우 교정만으로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고, 발치가 필요한 교정의 경우 영구치가 모두 맹출한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치아 상태에 따라 최적의 치료 시기가 달라지므로 전문가를 찾아 정밀 검사와 상담을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한옥의 위기와 지원 정책



천득염  
전남대 석좌교수·전남대 한옥위원장

한민족은 오랜 세월동안 한옥에서 살아왔다. 또한 한옥은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독특한 주거 형식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민족 고유의 전통 주거인 한옥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말았다. 일본인들은 한옥이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비근대적이며 건축비도 많이 든다고 하여 은근히 건축 행위를 억압하였다. 군사정권에서도 역시 산림녹화를 목적으로 산림의 벌채는 물론 목재 건축을 짓지 못하도록 권하였다. 심지어는 목재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전통 건축까지도 콘크리트로 짓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한때는 한옥을 콘크리트로 만들고 미색을 칠한 박정희식 전통 건축이 풍미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혼이 깃든 전통 건축을 버리고 시멘트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축에 익숙해져 갔다. 목조 건축은 나쁘고 콘크리트는 좋은 건축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믿게 되었고 결국 전국도가 시멘트 건물로 뒤덮이고 말았다. 농촌 마을에

까지 거대한, 15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이제 한옥 목수는 커녕 초가의 이영조차도 일 사람이 사라질 지경이다. 한옥이 비싸고 불편하다는 편견 때문에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호사 가들만의 소유물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30만여 채의 전통 한옥이 자리하고 있고 매년 약3000여 채 가량의 한옥이 건립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옥은 어떠한 존재이고 앞으로 우리의 주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옥에 배어 있는 친환경성을 보면 웰빙을 구가하려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주거 형식이 바로 한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습기와 온도를 조절해 주는 흙벽 구조, 지속 가능한 재료인 목구조, 겨울에 따뜻한 온돌과 여름에 시원한 마루의 조화, 뜨거운 태양빛을 조절하는 천정과 지붕 구조, 습기와 예법을 지켜 주는 마루의 높이, "구부러진 놈은 구부러진 대로 곧은 놈은 곧은 대로 쓴다"는 재료 사용의 탄력성, 상하의 위계가 뚜렷한 공간의 위계성 등 장점이 가득하다. 특히 앞으로 엄청난 양으로 생산되는 한반도의 목재를 수요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다면 결국 한옥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들이 경향 각지에 일고 있으며

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도지사 공관 건립을 비롯하여 관공서나 전시관 및 민박집 등을 한옥으로 짓기를 권장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여 왔다. 이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남도 한옥마을 브랜드 조성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업으로 이해된다. 영암에서는 국가 한옥박람회를 수년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1천만 명이 넘는 관람객으로 가득찬 전주와 서울 북촌에는 한옥 마을이 있고 광주에서는 국내 최초의 한옥 호텔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미 서구 주거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국민에게 한옥 주거 방식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을 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한옥을 권장함에 있어 행정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잘 챙겨 보아야 한다.

우선 한옥에 배어 있는 친환경적인 장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 비용을 절감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식 주거생활을 수용하는 표준설계도서의 작성과 건축 시공 지침서 제공, 부재의 규격화와 경량화, 목수 인력의 안정적 공급, 재정적 지원과 건축 행정의 단순화, 한옥을 통한 농민 수익 구도 마련, 한옥연구소 설립 등을 통한 중저가 한옥 기술 개발 등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급 위주의 양적 공급, 획일적인 형태, 너무

과대한 건축 규모, 유지 관리 방안, 예산 지원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 노정에 대한 보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본은 목조 주거가 아주 많은 나라이다. 중국은 벽돌조 주거가 가득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의 주거 건축은 국적이 없이 이질적인 서양식 주거로 가득찰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고 도시의 주거 비율에서 아파트가 80퍼센트를 넘는 가운데, 농촌에까지 서양식 주거 형식으로 가득 채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민족적 자긍과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선은 의식주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인들은 외교나 비즈니스에 전통 여관인 료칸을 자주 이용한다. 그곳에서 온천을 하고 식사를 하며 다다미방에서 머무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문화적 동화를 느끼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게 한다.

서구식 현대 주거가 주는 편리함은 건강에 많은 장해를 가져오고 있다. 건강한 주거에서 살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바람은 곧 한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의적 선택에 의하여 한옥형 주거 문화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의 얼을 찾고, 농촌을 살리며,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계도하면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산천에서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한 한옥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게 될 것이다.

社說

후손 없는 독립운동가들 추모 공간 마련을

전라도 출신 독립운동가 가운데 후손들이 확인되지 않은 '무후(無後) 선열'이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독립 유공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그들을 추모하거나 업적을 기려 나갈 자손들이 없다는 예기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호남 의병 활동과 3·1 만세 운동, 학생독립운동 등에 참여해 일제에 항거한 공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라도 출신 독립 유공자는 모두 2107명이다. 이는 북한을 포함한 10개 도 가운데 경상도와 평안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유공자가 전체의 23.3%인 493명(전남 162명·전북 331명)이나 된다. 올해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포상에도 광주·전남 출신 46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19명은 후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제작한 이들 무후 선열들의 훈장은 전수해 줄 사람이 없어 후손이 확인될 때까지 국가보훈처에서 보관하게 된다고

한다. 후손이 없어도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기념사업회 등이 꾸려져 추모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채 기록상으로도 존재한다. 1919년 3월 광주만세운동 때 일제에 항거하다 팔이 잘려 평생 독신으로 산 윤형숙 선생, 1907년 일제와 싸우다 교수형을 당한 호남 의병장 김봉규 선생 등은 마을 주민이 제사를 지내 주거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합동 추모제에서만 이름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무후 선열들의 업적을 조명하고 후대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치단체 등이 나서 나라를 위해 산화한 선열들을 한자리에 모셔 추모하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단이나 추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립 유공자 후손 확인 작업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F1대회로 진 빛 2029년까지 깊어야 한다니

전남도가 민선 4기 당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면서 발행한 지방채를 민선 9기에 해당하는 오는 2029년까지 갚아 나가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재정 상태의 전남도로서는 F1 빛을 갚기 위해 그만큼 미래를 위한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잘못된 과거 대규모 프로젝트의 대가를 미래세대가 치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F1 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8752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2848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했는데 올해까지 갚은 금액은 1698억 원. 나머지 1150억 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44억~158억 원으로 나눠 상환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위약금 분쟁이 종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F1대회는 2010~2013년 대회를 개최한 뒤 남은 계약 기간 2년(2015~2016년)은 개최를 포기했

데, 2016년 위약금에 대한 양측의 서신이 오간 뒤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모두 63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도 정비(2638억 원)에 이어 F1 부채(1150억 원)의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다만 전남도는 F1 경주장을 운영해 매년 1억 원 안팎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쭙 났든 F1 대회 관련 부채가 민선 9기에 해당하는 2029년까지 전남도 재정을 압박하게 되는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 타산지식으로 삼아 앞으로 대규모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회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 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 여력 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는 관행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주 오래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다룬 다큐 '낮은 목소리'(1995·변영주 감독)를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남는 이는 김순덕 할머니였다. 조용조용한 성품의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에 늘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영화를 보고난 후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접하곤 마음이 착잡해졌다. 꽃피는 어느 날,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소녀 순덕이'가 근복을 입은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고 있다. 깜짝 놀라 꼭 토끼처럼 동그어진 순덕이의 눈엔

1944년 일본군을 탈출해 광복군에 투신하기까지 6000리(2400km)에 이르는, "망국과 분단이라는 함정에 빠진 젊은 사자들의 울분과도 같이 처절함"을 생생하게 묘사한 책의 내용은 이 작가의 끝끝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선내 나는 작은 물웅덩이 물을 엮드린 채 끌려가며 마시는 모습, 뜨겁게 애국가를 부르며, 한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소녀 순덕이'가 근복을 입은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고 있다. 깜짝 놀라 꼭 토끼처럼 동그어진 순덕이의 눈엔

'뭇난 조상'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림을 통해 치유를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한 장의 그림은 수천 마디 말보다 깊게 다가왔다. 은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동환 작가의 판화전 '가슴에 품은 돌베개'전(9월2일까지)을 찾았을 때도 묵직한 작품들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이번 전시작들은 '영원한 광복군' 고(故) 장준하(1918~1975)의 자전적 수기 '돌베개-장준하의 항일 대장정'(돌베개 간) 속 장면을 135점의 목판화로 풀어냈다.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은 '의문사'라는 타이틀이 달렸다. 1975년 포천 약사봉에 올랐다는문사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한 장의 그림은 수천 마디 말보다 깊게 다가왔다. 불합리함에 눈 감고, 제 앞가림하기 바쁜 시대,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과 '선배'인지 뜨끔해지는 요즘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